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산형가 · 여호수아

에베소서 · 빌립보서 · 골로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신명기 · 여호수아

에베소서 · 빌립보서 · 골로새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우리의 삶에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루는 우리는 결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취합시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됩시다.

2007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의 성결과 가정의 질서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체가 발견되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온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례(1~9절), 포로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유의해야 할 규례(10~14절), 아비의 편애로 장자권이 다른 아들에게 이양되는 그릇된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15~17절),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을 다루는 규례(18~21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과 부패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시고, 또 오염된 자를 구제하기 원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람들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아래 질서 있게 순종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길입니다. 삶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의 행복과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찌니라”(신 2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거룩과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총현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사회 내의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의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주고 잘 관리해 주라는 이웃 사랑의 규례(1~4절), 남녀 의복의 혼합 착용 금지(5절), 자연 미물들을 보호(6,7절),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 예방(8절), 생활에 있어 혼합을 금지(9~11절), 옷단에 술을 착용하여 선민 의식 고취(12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남편에 대한 처벌(13~21절), 강간과 간통 및 추악한 성 관계 금지 규례(22~30절)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들 한가지 한가지가 얼마나 자상한 배려인지 모르습니다. 옷단에 술을 착용하라는 것처럼 오늘날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규례는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과 육신의 순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는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공의의 두 성품을 지니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 대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기초를 두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찌니라”(신 22:4)

기도 제목 ① CMTC훈련을 통하여 2007년 후반기 선교와 2008년 선교를 온전히 준비하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한 삶으로 사랑과 긍휼이 항상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례들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와의 거룩한 총회인 이스라엘 내에 영원히 혹은 일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례(1~8절)를 소개하고 있으며, 거룩한 공동체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결을 유지케 하기 위한 규례(9~14절) 및 노예 관계법(15,16절), 음란자와 고리 대금업 금지법(17,18절), 서원과 그 이행에 대한 규례(21~23절) 및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한 행동 지침(24,25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즉,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며, 공동체의 지체된 사람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거룩을 중요시하면서도 공동체의 거룩은 가볍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인 거룩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의 거룩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동시에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매순간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거룩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시다.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신 23:20)

기도 제목 ① 각 교회학교의 교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② 전도위원회에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영혼 구원의 열심과 주안에서 받는 직분을 삼가 이루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거룩하신 하나님의 총회인 이스라엘에게 공동체 안에서 순결과 거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후에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권고합니다. 특별히 모세는 여자들에게 절대 불리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이혼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1~4절), 새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법률(5절),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수탈을 금지하는 법률(6,7절), 문둥병자를 위한 법률(8,9절), 가난한 자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한 제반 법률(10~22절) 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약자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도 주위의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지닌 자의 자기부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하나님은 이처럼 이웃 사랑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피난처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이 대답”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신 24:17)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풍성히 실천하게 하소서. ② 현
 지인 사역자들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범죄자들 대로 다스리되 지나친 매질을 삼갈것(1~3절),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4절), 혈통의 보존을 위한 계대 결혼법(5~10절), 공정한 저울추로 거래(13~16절),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17~19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때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사랑해야 하는지, 또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태형법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한 형제이기에 인권을 보호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갱생하는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존귀히 되며 보혈로 적시어지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찌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신 25:3)

기도 제목 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위원회 헌신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전한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서두에서(1~11절)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셋째, 애굽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12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도록 가나안 땅의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며 헌금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렵돈을 넣은 과부의 심령을 보고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는 형식적인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헌금을 드린다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인색하게”(13,14절)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16, 17절) 함으로 “여호와와 성민”(19절)이 되는 언약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신 26:10)

기도 제목 ① 새가족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격하며 늘 새롭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가나안에 입성하면 곧바로 돌비석을 준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돌단을 에발산에 쌓으라는 명령(1~10절)과 축복의 산인 그리스산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각각 이스라엘 여섯 지파를 세우고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임을 명확히 선포하라는 명령(11~26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같은 명령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복하는 것이 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 주며, 신앙생활에는 결코 중간지대가 없으며 오직 생명과 사망을 결정짓는 두 가지 결단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와 단을 쌓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헌신과 화목을 다짐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5~8절) 이 제사들은 저주의 땅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또한 11절 이하에 보면 “...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언약의 확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찌니라”(신 27:10)

기도 제목 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케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하며 풍요로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1~14절),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각종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15~58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복과 저주로 임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불순종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장에는 축복의 선언보다 불순종의 저주의 경고가 더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불순종을 일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래 인간은 순종보다 불순종에 더 익숙한 간악한 자들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일깨워 순종의 길로 이끄시려고 다양한 형태의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 28:14)

기도 제목 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정병들을 양성하는 후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약 40년간 방황했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1~9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10~15절), 불신앙자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 및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16~29절)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억지나 강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순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자기 의로 가득차서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면 “십자가! 다 아는 것 아니야?”라며 판단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은 외식이 됩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6절)이심을 기억하며 절대적인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께서 사십 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해어지지 아니하였으며”(신 29:5)

기도 제목 ① 심령이 가난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설립주일 특별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장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징벌을 받게 될 이스라엘을 내다 보면서 그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설명해 줍니다.(1~10절) 또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각종 율례와 명령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면서 순종을 통하여 생명과 복을 얻으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11~20절)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멸망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징벌을 받을 때조차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은총 가운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심판과 고난은 멸망의 채찍이 아니라 사랑의 매입니다.

본문은 회개의 단계를 말씀을 기억하는 것(1절), 죄에서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2,3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2,6,8~10,16,20절)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15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참되며 순종의 길로 구별되는 삶입니다. 적당한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불순종은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신 30:15)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의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임종을 앞 둔 모세가 앞으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할 이스라엘 신세대와 그들을 이끌고 나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염려할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며 미리 위로합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사역 중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요 14:1)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든 율례와 명령을 기록하여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매 안식년과 초막절에 백성 앞에서 낭독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9~13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찌니라”(13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을 기한을 아시고 불려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을 것을 명하며 가르치시듯(14, 28절)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 즉,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의 천국일꾼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신 31:23)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일꾼으로 자라게 하소서. ②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확신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모세의 시”이며 “모세의 증거의 노래”라 불리는 이 장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찌어다”(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고백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은 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으로(9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염려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배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뒤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격되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43절은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신약의 새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심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초라도 잡아주지 않으시면 언제라도 타락하고 넘어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믿음의 순종,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경주합시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초소 위에 단 비로다”(신 32:2)

기도 제목 ① 우리를 돌아보아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 역삼동 주변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죽음을 앞 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 축복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선포될 축복의 궁극적 원천이 하나님임을 밝힙니다. 5~25절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29절 말씀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 올리는 찬양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행복을 담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27절은 특별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하고 안전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영원한 인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총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생명의 말씀을 간직함으로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영원을 소유한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신 33:3)

기도 제목 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선교위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이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며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반복하는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새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장이며 이 시기는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특별히 1절~8절의 말씀은 트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일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 주었던 모세조차도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 할지라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의와 경건을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보혈의 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신 34:4)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며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며 성령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열두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자주 두려움에 빠진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후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고 여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7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몰라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혹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 말라”(9절)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함”(6~9절)을 뜻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영적 가나안 곧, 죄악의 세력을 정복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 집니다. 가나안 정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라 명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대적 행복으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 1:8)

기도 제목 ① 연약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붙들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② 신령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파송한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었던 당시에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9,11절) 실로 라합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 사람의 지성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러 외딴 오지나 해외의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는 전도자들은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의 계획이나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선교 현장으로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의 명령으로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석같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었고, 주위에 있는 가나안인은 우상숭배자였지만 은혜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으며 이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았습니다.(마 1:5)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보혈의 은총을 예비하신 영혼들에게 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만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수 2:24)

기도 제목 ① 충현교회 단기선교팀들이 선교지에서 라합처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② 각 교회학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이 증거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 온 땅의 주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11~13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어깨에 들려져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5절)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성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결이 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돌이켜 회개하며 끊임없는 자기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히 12:14)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성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수 3:16,17)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확실히 체험하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려고 두 곳에 열두 돌 기념비를 세운 것을 기준으로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요단강 도하가 진행되는 동안 요단강 가운데 첫 열두 돌 기념비를 세웠고(1~18절) 후반부는 요단강 안에서 취한 열두 돌을 가지고 가나안의 첫 장소인 길갈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내용입니다.(19~24절) 구속사적 측면에서 볼 때, 요단강 도하는 홍해 도하와 다릅니다.(23절) 홍해 도하는 과거 죄에 매여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물로 세례(고전 10:2)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의미하며, 요단강 도하는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성결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감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같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 역사를 기념하였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표징인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여호와와 그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수 4:24)

기도 제목 ① 구원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케 하소서. ②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가운데 보혈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길갈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할례(2~9절)와 유월절(10~12절)을 지켰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앞두고 위급한 상황(1절) 속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비록 위급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표시인 할례와 유월절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그를 위로한 일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한 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13~15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행사인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하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롬 2:29)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동참할 수 있으며,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 완전하게 깨끗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용서하였노라”고 말씀 하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가슴 속을 적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와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수 5:15)

기도 제목 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② 모든 전도회 회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한 몸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7절) 은혜로 세워 주심으로써 직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결하게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순종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되 다른 직분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섬기며 협력하여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한 지체임을 확인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몸으로 세워가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22~24절)을 입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을 허망한데 두지 말고(17절)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30절)고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함과 순결한 삶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 얻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성령께 순종할 때 서로 인자하게 되며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하는(32절) 풍성한 성령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기도 제목 ① 직분자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1절)는 것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8절)는 것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15, 16절)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받으라는 것은 사랑과 거룩함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은(8절) 우리는 빛 그 자체가 아니므로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에 의하여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자기욕심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경외하는(33절)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며 알아야 합니다. 남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며, 아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함을 그 마음에 품고 있어야 예수님께 절대적인 행복이 있게 되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진”(2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관계정립과 직장에서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효와 복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2,3절) 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12절) 사탄은 강력하며 사악하며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10~20절) 우리는 진리로 떠 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자신의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 달라’(19절)고 기도와 간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자신이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20절)면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엠피 6:17)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소서. ② 예배위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빌립보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서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의 평안과 영적 진보를 염원하는 참된 목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로마의 옥에 갇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진전을 알려서, 로마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내용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투옥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심오한 기쁨을 누렸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수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빌립보교회를 위한 기도(3~11절), 그리스도를 전파함(12~18절), 신앙의 용기와 소망(19~26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27~30절) 등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며 궁극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쁨게 받아들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며 매순간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29절)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25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

기도 제목 ① 우리를 사랑하사 값 없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 장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자신의 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피력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던 바울은 초점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실천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한 다음, 그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는 기독교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겸손의 촉구(1~11절), 성화의 촉구(12~18절), 동역자 추천(19~30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중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12절)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취시킨 구원 사역에 대하여 성도의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라도 매 순간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며 실패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13절) 라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말씀하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자기를 비우고(7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5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과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유대주의자들이 빌립교회에 침입하여 복음의 순수성을 흐리고 있던 바, 이에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적대자와의 논쟁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바울 자신의 입장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등으로 표현하면서 매우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적대자들에 대하여 강경한 경고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이 가져다 준 유익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1~14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본받아 진리를 굳게 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15~21절)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다만 나그네에 불과하며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 즉 그리스도로 인한 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8,9절)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빌 3:20)

기도 제목 ① 거짓 된 사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명절이 되도록 도우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빌립보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과 인사입니다.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1절)인 빌립보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만족스럽고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고통스런 일이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값 없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엡 2:8)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캄캄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죄수라는 신분과 그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듯이 우리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기도 제목 ①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시에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기독교론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변호할 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골로새교회는 마침내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보내어 해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에바브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고, 바울은 골로새교회의 급박한 상황에 대한 교훈을 담은 골로새서를 두기고를 통해 골로새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골로새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이루어진 전반부(1~14절)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15~23절)와 골로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 자신의 사역의 관련성에 관하여 설명하는 후반부(24~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단적 교리가 성행했던 골로새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독특한 기독교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24절)고 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은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이 비밀은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26,27절)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23절)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 순위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하여(28절)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29절) 삶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

기도 제목 ① 구원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헌신적인 사역과 함께 사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풍성한 사랑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심령으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복음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과 확신에 이르기 를 바란다는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행 4:12) 이 진리에 굳게 서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5~7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2절)입니다. 골로새교회 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8절)과 같은 각종 이단 사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왔고 거짓 가르침의 폐해는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8~15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11절)와 예수님의 부활(12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는 세상 학문과 철학과 혼합주의적인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유혹하며 도전하지만 십자가만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② 교회가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원리(1~17절)를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의 생명력 있는 연합과 이 연합이 가져다주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믿음의 능력과 용기를 일깨워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합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면서 이를 위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악한 본성과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성향을 제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벧전 2:11) 끝나지 않는 죄의 유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자유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삶의 전 영역에서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감사와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히 13:15)

음란과 부정, 사욕과 탐심, 분과 악의와 훼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은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5~17절)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9절)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종과 사랑, 순종과 충성과 섬김(18~24절)을 이야기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자기부인을 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속죄물로 드리시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쳐 복종하여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부인으로 순종하며, 말도 행동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흠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7)

기도 제목 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회·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2절)라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적극적이며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는 사모하는 마음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 할 수는 없어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음의 현저한 진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빌 1:25)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벌써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히 4:16)

기도가 주님께 향하는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사랑이 더욱 두터운 신뢰를 쌓아 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연약한 지체는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갑니다.(12,13절)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온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하나되어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와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18절)며 골로새서를 맺고 있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복음 전파로 매이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2)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풍성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 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9월 구역교재 초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믿음의 삶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바로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든지 쉬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절망과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831	고전 11:23~34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육신의 것을 버린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자
0907	수 7:6~10	일어나라	의심과 걱정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알미암아 일어나자
0914	수 6:20,21	믿음의 승리	지금 즉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0921	대하 15:1~7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찾아 만나자
0928	막 2:1~12	네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사람이 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 초점 |

육신의 것을 버린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자

| 찬송 |

찬송가 283장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찬송가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고린도전서 11:23~34

^㉓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㉔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㉕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㉖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찌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주의 만찬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의미없는 형식적인 예식도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올바르게 살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연약함, 질병, 또는 죽음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자신을 올바르게 살피면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전 11:28,29 / 사람이 _____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_____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히 12:1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_____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므로 필요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자신의 소지품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모든 죄책감을 버려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십니다.

요일 1:9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십시오. 자신의 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책감을 버리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시 103:12,13 / ☐이 ☐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께서 자기를 ☐☐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모든 원한을 버려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원한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눅 23:34 /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_____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자존심과 시기, 증오를 버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눅 17:4

주의 만찬은 죄 사함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쓴 뿌리를 버려라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쓴 뿌리를 버려야 합니다.

히 12:15 /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눈과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쓴 뿌리를 없애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중에도 악한 말을 내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참으셨는데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원한을 품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벧전 2:24 / 친히 나무에 달려 _____

이는 우리로 _____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증오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평화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노와 화,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오직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나아오십시오.

모든 짐을 버려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마 11:28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데 왜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십니까?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맡기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십시오.

벧전 5:7 / _____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십자가로 路

주의 만찬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가치 없고 해로운 육신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자신을 회복하십시오. 죄책감과 원한, 쓴 뿌리,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버린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고전 11:31,32 /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을 받는 것은 주께 □□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주님이 나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복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신의 것들을 버리고 행복과 기쁨, 감사가 가득한 감격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주의 만찬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2. 모든 죄책감, 원한, 쓴 뿌리, 짐을 버리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3.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2과 일어나라

| 초 점 |

의심과 걱정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자

| 찬 송 |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본 문 | 여호수아 7:6~10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
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
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신 31:7; 수 1:1,2)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수 3:17)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수 6:20)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수 7:5)

※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또한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부인은 없고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 7:6,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의심을 버리고 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는 일을 중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수 7:7 /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 사람의 손에 붙여 □□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자마자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먹이셨으며, 광야 한 가운데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으며, 예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잊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 136:1 / _____ 그는 선하시며 _____

※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돌아보며 죄인 중에 과수인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선하신 은총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일어나라

우리는 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지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수 7:8 / 주여 이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망하려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저편에 거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수 1:9

여호수아는 승리가 아닌 패배에 시선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빌 3:13,14 / 형제들아 나는 _____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_____
 _____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_____ 쫓아가노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는 일을 중지하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합니다.

수 7:9 / □□□ 사람과 이 땅 모든 □□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나йка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적들이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 충고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히 11:6

마 6:30

십자가로 路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넘어질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수 7:10 / 여호와께서 _____ 어찌하여 이렇게 었드렸느냐

고전 15:57,58 / _____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_____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

※ 지금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모든 의심과 걱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소서
2.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실패와 절망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
3.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믿음의 승리

| 초 점 |

지금 즉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자

| 찬 송 |

찬송가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 문 | 여호수아 6:20,21

²⁰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²¹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십 년 동안 광야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느라 오히려 지치고 피곤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견고하고 높은 성벽에 둘러싸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수 6:1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나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성 주위를 돌 때 왜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바보처럼 성 주위를 맴돌아야 하느냐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돌았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지 나누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각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정한 믿음으로 목청껏 외쳤습니다. 마침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

여리고성 정복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 11:30 / _____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_____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 뛰어난 전략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정복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이 기회이다

믿음의 기회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입니다.

수 6:2 /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와 그 과 을 네 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단단히 잠긴 여리고 성벽과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곳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여호수아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해 달려 들어갈지 아니면 피해서 달아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 13:30 / 갈렙이 모세 앞에서 _____ 우리가 곧 올라가서 _____ 하나

민 13:33 /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_____ 우리는 _____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순종하자

믿음의 순종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수 6:16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실패할 게 뻔한 계획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일 5:4 / 대저 _____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_____

엡 2:8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_____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_____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언제나 구원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약 1:5,6 /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
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으
로 구하고 조금도 □□하지 말라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하
는 바다 물결 같으니

왕하 5:14 / □□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대로 요단 강에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
었다

순종은 역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
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요 11:40

십자가로 路

승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수 6:15 / _____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_____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다

수 6:20 / 이에 _____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_____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_____

※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는 각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간절한 기도 |

1. 지금 즉시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3. 믿음의 계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늘 승리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4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 초점 |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찾아 만나자

| 찬송 |

찬송가 63장 서산으로 해질 때

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 본문 | 역대하 15:1~7

㉑ 하나님의 신이 오벧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㉒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밋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 ㉓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대부분의 다윗의 자손들은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아처럼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사는 비참한 상태에 있던 유다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습니다.

※ 아사가 왕위에 오른 뒤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대하 14:1~5 참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시방에” 평안함을 주셔서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대하 14:6,7) 그러던 중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대하 14:11 / 그 하나님 _____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_____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

※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구스와의 전쟁에서 아사왕은 자신과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도와주셨고 이로 인해 유다는 크게 승리했습니다.

대하 14:12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대하 15:2 / ...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을 들으라 너희가 와 함께하면 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

아사라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질, 명예, 우리의 노력을 통한 성공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히 12:2 / _____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_____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주님만을 바라보게 초점을 두는 것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대하 15:2 / ... 너희가 만일 _____
너희가 만일 _____

인간은 본성적으로 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며, 훌륭한 가정, 좋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한 성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과 접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기회가 있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딤후 6:17 /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없는 □□에 □□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께 두며

우리의 참 소망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공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깊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일을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나, 문둥병자, 눈 먼 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눅 23:42,43 /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에 임하실 때에 나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5:6 / □□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하나님은 죄인이나 타락한 자도 만나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구세주를 찾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그리스도 만나기를 구하십시오.

롬 10:9 / 네가 만일 네 입으로 _____ 또 하나님께
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_____ 구원
을 얻으리니

롬 10:13 / 누구든지 _____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적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해야 합니다.

신 4:29

렘 29:13

※ 거기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찾고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타락했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십시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간절한 기도 |

1. 총현의 성도들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찾고 만나게 하소서.
2.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죄인임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5과 네 사람

| 초 점 |

죽어가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총의 사람이 되자

| 찬 송 |

찬송가 267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 본 문 | 마가복음 2:1~12

㉑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㉒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 ㉓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㉔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음으로 路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며, 문둥병자,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바람과 파도조차도 예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 1:32,33 /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와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막 2:2 / ☐☐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필요를 깨달은 네 사람은 그를 침상 채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사람이 없었다면 죄사함과 병 고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네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았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영혼을 사랑한 네 사람

네 사람의 관심은 중풍병자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막 2:3 /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_____
예수께로 올쌌

이 네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세상이 무관심했던 사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빌 1:8

네 사람은 명예나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풍병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문제들을 극복했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 사용된 시간입니다.

※ 지금 자신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과 설교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붙잡히 여기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만나셨던 종교 지도자들도 오직 위선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 23:27 / ☐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한 ☐☐ 같으니 ☐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에는 죽은 사람의 ☐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믿음으로 행동한 네 사람

네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막 2:4 / _____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_____

네 사람에게는 집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결국 지붕을 뜯어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지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롬 9:3

※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앞을 가로막았던 장애물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은총을 경험한 네 사람

다섯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막 2:5

막 2:11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영혼을 치료하셨고 그 후에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침상을 비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침상이 아니라 가벼운 들것에 불과했습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막 2:10 / 그러나 □□가 땅에서 □를 사하는 □□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막 2:12 / 그가 일어나 곧 □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을 □□□□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주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 교회는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엡 4:11,12 /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를 □□케 하며 □□의 일을 하게 하며 □□□□의 □을 세우려 하심이라

행 8:4 /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의 □□을 전할새

※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누어 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주변에 자신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 간절한 기도 |

1.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종헌교회에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3.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

⁽¹⁾하나님의 신이 오렛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시매
⁽²⁾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밋 유다와 베나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 ⁽⁶⁾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⁷⁾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역대하 15:1~7)

다윗의 자손들은 대부분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처럼 믿음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왕 아사는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대하 14:2) 그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을 척결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대하 14:3~5)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행한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방에” 평안함을 주셔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대하 14:6,7) 그러자 마귀는 “군사 백만과 병거 삼백 승”을 거느린 구스 사람 세라를 이용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겁

에 질렸습니다. 아사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아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박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대하 14:11) 아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대하 14:12) 그들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큰 일을 해냈다고 들뜨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사가 즉위하기 전 유다의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십 년 동안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만 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돈이나 명예, 우리의 노력에 의한 성공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사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찌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

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2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야말로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하며, 훌륭한 가정,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과 접촉하려고 애를 쓰지만 약속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혹 운이 좋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만을 할애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최고의 소식입니다. 암 치료제를 발견했다는 것보다, 범죄와 폭력이 근절되었다는 것보다,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죄인이나 타락한 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2,4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지나, 문둥병자, 눈먼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도 만나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 4:29) 예레미야 29:13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6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위선자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취미 삼아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설 곳은 없습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구주 예수님을 찾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평안합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대적이 여러분 주위를 날뛰며 돌아다니더라도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죄를 지었다면 죄를 고백하십시오. 다시 타락했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많은 죄악들이 관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각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장예배 안내자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9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